

개념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루 쓴다면 어느 범위까지 두루 쓰이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국어 사용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하여 사용 빈도를 측정할 과학적 방식으로 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거친 적이 한 번도 없다.

대상 지역으로 ‘서울말’을 지정한 것은 두 안이 일치한다. ‘서울말’이 표준어라면 나머지 지역의 말은 전부 ‘비표준어’여서 버려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또 실제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두루막 [똥]두루마기”의 잘못, “두루매기 [똥]두루마기”의 잘못.” 등과 같이 뜻풀이를 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음운론적 변이형을 올림말로 올려서도 안 되겠지만 이들을 ‘서울말’이 아니어서 비천하고 권위가 없는 말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서울말이 아니어도 훌륭한 낱말들은 셀 수 없이 많은데 사회·문화적 차이 때문에 서울 지역에 없는 말은 전부 내다 버려야 할 말인가. 인구 20만 시절의 서울 지역의 말과 인구 1천만을 헤아리는 오늘날의 서울 지역의 말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오늘날 ‘서울말’이란 허구적인 존재일 뿐이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간파한 일본은 일찍이 ‘동경어’라는 기준에서 두루 통용되는 ‘공통어’라는 기준으로 규범어 기준의 지역적 제한을 없앴 것이다. 규범적인 언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논리도 과학성도 없는 규정에 기대어서 표준어를 규정함으로써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다.

광복과 더불어 우리말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지배로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다시 두 개의 ‘국가어’로 분할되는 상황이 되었다. 북쪽에서는 1966년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교시를 근거로 하여 문화어를 제정하였다. “우리 혁명의 참모부가 있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방면에 걸치는 우리 혁명의 전반적 전략과 전술이 세워지는 혁명의 수도이며 요람지인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의 민족적 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1966년 5월 14일) 이처럼 북쪽

이 표준어의 기준을 바꿈으로써 남과 북이 언어의 규범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북에서는 1966년 ‘문화어발음법’을 제정하여 『조선말규범집』에 실었고, 남에서는 1988년 ‘표준어발음법’을 제정하였다. 남쪽이 북쪽에 대응하여 훨씬 뒤에 표준어 발음법을 제정하게 된 것인데 두음 법칙, 음운 첨가와 같은 부분에서 남북 간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남쪽에서는 외국어나 한자어를 순화한 순화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북쪽에서는 다듬은 말을 국가에서 통일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남쪽에서는 1948년 문교부 편수국에서 주관하여 ‘우리말 도로 찾기’를 간행하여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운동을 벌였다. 여기에서 시작하여 1976년에는 문교부에서 ‘국어 순화 운동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대적인 국어 순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예를 들면 운동 관련 용어 중에 ‘포볼’을 ‘볼넷’, ‘코너킥’을 ‘모서리 차기’, ‘사이드 라인’을 ‘옆줄’ 등으로 순화하는 운동을 전개했지만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희화의 대상이 되었다. 북쪽에서는 1964년 이래 말다듬기를 시작하여 1987년 ‘다듬은 말’ 2만 5천 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여러 차례 어휘 정리 사업을 민족 주체성을 고양한다는 관점에서 전개해 왔다.

남쪽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표준어 정책을, 북쪽에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문화어 정책을 펼침으로써, 한 민족 언어가 두 가지 다른 규범으로 분리되었다. 민족어의 규범은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황해도 등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상어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어야 한다. “어느 지역 일상어가 더 낫고 어느 지역 일상어가 더 못하다.”라는 상대적 가치 평가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전라도면 전라도 말, 경상도면 경상도 말 자체가 하나의 가치를 지닌 말의 체계이므로 개별 일상어가 가진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갈고 보존하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언어인 표준어나 문화어의 규정에 묶여서 서울말이나 평양

말이 아닌 지역 방언은 없애 버려야 할 대상으로 폄하하고 있다.

전체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민족어란 흔히 표준어만을 뜻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문법’이라면 흔히 표준어에 적용되는 국어 문법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 ‘한국어’라는 개념이 이처럼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각각의 규범이 존재하는 상황이니만큼 이를 통합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도 한반도에 거주하는 동포는 물론이고 재외 동포들이 사용하는 일상 언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남쪽의 표준어를 중심으로 한 여러 방언과 북쪽의 문화어를 비롯한 여러 방언과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재외 동포들의 여러 방언도 사회 역사 체제에 의해 생성된 우리 민족어의 하위 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

5. 방언을 되살리기 위해

제국주의식민 시대의 언어 정책은 억압과 굴종, 일방적 지배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는 타자화한 피지배족의 언어나 변두리 언어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금세기 이후에는 언어 사용자 스스로 자본 중심의 우월한 언어에 자발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와 함께 획기적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지식·정보 생산성의 증가와 함께 유통 방식이 발달하면서 언어가 대량으로 뒤섞여 자본 중심의 언어로 집중되는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강압적 변화가 아닌 자발적 변화라는 점이 더욱 의미심장하다.

국가 간의 언어와 문자가 뒤섞이면서 개인의 지식·정보의 수준 차이에 따라 동일한 정보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 내용을 파악하는 개별적인 능력 차이가 사회 계층적 차이로 양극화되고 있다. 글을 읽을 줄은 알지만

글에 실린 낱말이나 문맥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증상을 난독증이라 부른다. 의학적인 원인으로 난독증을 갖게 된 사람도 있지만 최근에는 복잡한 언어 환경과 개인 사이의 지식과 정보 격차 때문에 난독자가 늘어나고 있다. 난해한 한자어, 인터넷 상의 외계언어, 신조어, 외래어, 외국어 한글 표기, 약어, 전문용어의 확대와 확산 때문에 개인적 소통 능력이 양극화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표준어중심주의의 패러다임을 ‘언어 생태주의’ 혹은 ‘상태언어학’으로 언어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태주의는 유행이 아니라 문화 다양성과 언어다양성을 유지하는 최고한의 가치인 것이다.

생태주의는 ‘큰 것에 비해 작은 것을 우대하고 힘의 지속적인 팽창이 약한 것의 희생을 야기하는’ 것에 대항하는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토대를 두고 있는 ‘상태언어학’ 혹은 ‘언어 생태학’은 다수 언어 및 대언어의 팽창에 따라 ‘정체되거나 수축되는’ 소수 언어를 보호하고 거대한 단일 언어의 위세로부터 ‘작고 평균적인’ 다양한 언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분야이다. ‘언어 생태학’이라는 명칭은 1970년 아이나르 호우건Einar Haugen의 강연 ‘언어의 생태학The Ecology Language’에서 유래되어 1972년 그의 논문집에 이 이름을 붙임으로써 학술적 명칭이 되었다. 호우건은 「특정 언어와 그의 환경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탐구」라고 ‘언어 생태학’을 정의하고 있다. 이 언어생태학의 관점에 의해 노먼 데니슨Norman Denison은 소멸되어 가는 언어들을 소멸의 위기에 처한 동식물들과 똑같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알빈 필Alwin Fill은 ‘생태 언어학’에서 다루는 주제를 「거대하고 경제적으로 강한 언어에 의한 소수 언어의 억압, 소수 언어의 소외로 인한 언어사회의 통일, 위기에 직면한 언어의 소멸이나 존속 등...」이라고 설명한다. 위협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위기에 처해 있는 소수 언어의 소멸을 막아내는 것도 최소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

이다. 루이 창 칼베가 제시한 ‘정치적, 언어적으로 올바른 담론’은 ‘생태 언어학’의 관점에서 소수 언어들을 옹호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눈부신 경제적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는 우리의 지난 민주화의 이력과 오늘날 한국의 발전상을 경이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적과도 같은 성장의 비책을 연구하고 배우려 한다. 부존자원도 풍족하지 않고 기술의 기반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민주 제도의 정착과 경제적 부강을 동시에 이루어 낼 수 있었는가? 뛰어난 국가 지도자의 힘이었을까? 아니면 국민의 저력이었을까? 어느 것 하나도 틀린 것은 아니나, 완전한 정답도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구 상 어느 나라도 따라잡기 힘들 정도의 정보화 기술력과 고급 콘텐츠 기반 그리고 뛰어난 문화 기획력을 통한 문화 연출을 선도할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 거대한 정보 문화의 힘의 원천은 바로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의 힘은 아닐까?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민주화의 열기에 부응하여 맘껏 국민의 뜻을 펼 수 있게 한 것이 오늘의 민주주의의 저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이어져 온 대학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핵심은 바로 한글이라는 정보 매체로 전달된 신문과 저널 그리고 대학교의 대자보였다. 실용적 편리성을 추구한 세종대왕의 정보화 예견력은 바로 2000년대의 한글 정보화 시대를 겨냥한 것이었다.

2000년대 들어 우리의 정보화 기술과 그 내용인 콘텐츠 구축도 전 세계를 선도할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세계의 문자 중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디지털 기술로 조합하기에 가장 적합한 한글이라는 우리 문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근 휴대 전화의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 휴대 전화의 자판을 활용하여 가장

빠른 속도로 개인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꼽히고 있다. 휴대 전화의 한글 자판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가획(加劃) 원리에 기초한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560년 전 세종이 창제한 한글이 조선 시대에는 한문 문화에 짓눌렸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어에 짓밟히면서 연명하다가 이제 바야흐로 한글이 제대로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 세계인들과 만나며 온갖 정보와 지식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지적 민주화를 누리고 있다. 정보화 덕택에 우리 국민들은 지적 수준의 편차가 거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세계인들과 교류하고 지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저력은 바로 한글의 과학성에서 나온다.

오늘날의 이러한 문명적인 상황을 ‘디지털 노마디즘’이라고 한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가 소통하고, 양질의 정보력이 자본주의 시장을 압도할 것이라는 질 들뢰즈의 예견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때 온라인을 통한 소통의 새로운 가치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지난날 말을 타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민족의 언어를 유목민형 언어라 정의했는데, 이젠 말馬이 아닌 인터넷 언어를 통해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 간에 소통하는 시대에 이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마치 13세기 몽골과 같은 21세기의 디지털 유목 강국인 셈이다.

그 저력의 밑바탕에는 바로 우수한 한글의 과학성과 합리성이 있었다. 이제는 한글이 한국인만의 문자가 아니라 세계인의 문자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계에 알릴 차례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몽골과 중앙아시아·러시아 등 재외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연차적으로 100여 개의 ‘세종학당’을 설립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한글을 첨병으로 문화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해 한국을 중심으로 한 21세기 동북아 지역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새로운 우방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국 문화 즐기기(이른바 ‘한류’)

열풍이 한창인 지금이야말로 아시아의 내면적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
말과 상대 국가의 말이 소통되도록 하려는 국가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할
적절한 시기이다.

지난 20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의 언어 식민화 정책과 자본주의 강대국의
언어 약탈 정책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많은 민족의 언어가 절멸의 길을 걸어
왔다. 언어의 절멸은 망국과 민족 해체로 이르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문화와 정신의 절멸을 의미한다. 만주 별판에 흠여져 살던
만주족이나 여진족들이 사용하던 만주어나 여진어, 몽골 대초원을 말 타고
달리던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사용하던 몽골 문자들은 이미 사라져 버린 지
오래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는 근대 서구 자본주의의 폭력과 제국주의의 억압으
로 점철된 고통스러운 기억을 간직한 나라들이 많다. 강대국으로부터 겪은
식민지의 고통과 전쟁으로 받은 엄청난 상처들을 가슴 속에 고스란히 묻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다.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의 나라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식
민 지배와 전쟁의 상처를 입은 채 버텨 왔다. 최근 필리핀의 경우 그들 민족
어인 타갈로그어가 공용어인 영어의 위세에 눌려 중류 계층에서는 타갈로
그 영어와 같은 혼종 언어가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에 소외된 하위 계층의
사람들은 타갈로그어밖에 모르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은 내면적 식민화의 그늘이 길게 드리워진 것도 알지 못하면서
서로가 따뜻한 연대의 손을 단 한 번도 잡아 보지 못한 채 살아왔다.

세계 최대 대륙인 아시아, 그 중심에 서 있는 세 나라, 곧 3마리의 용으로
비유되는 중국, 일본, 한국이 있다. 이 세 마리의 용 가운데 유일하게 다른
나라를 지배한 경험이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아시아의 여러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전쟁과 식민화 등 많은 상흔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의 글과 말은 절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히려 눈부신 경제 성장과 더불어 세계적인 정보 통신(IT) 산업을 이끌고 있는 선도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바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자인 ‘한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과 말은 이처럼 소중한 존재이다. 아시아의 문화 연대를 위해서는 아시아 내부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배적 언어로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접해 있는 언어로 소통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언어 횡단의 방식으로 아시아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시아인들의 새로운 내면적 소통을 위해서는 다양한 민족과 국가 상호 간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시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동시에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젠 아시아의 단결과 평화를 이끌어 갈 책임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따뜻하게 안으면서 서로 의사를 소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시아인들을 우리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아시아의 세계를 꿈꾸어야 한다.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의 경계를 넘어야 하는 일은 아시아의 새로운 연대와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국가 간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적 공동체를 결성하는 일은 21세기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이끌어 가기 위한 매우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아시아인들의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을 동등하게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방식’으로서 우리 겨레의 말과 글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도록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새로운 아시아의 꿈과 이상을 키우는 데에 만형 노릇을 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 최근 포스코POSCO 재단에서 ‘아시아 지역 학술 연구 지

원 재단'을 설립하고, 또 새로운 아시아의 가치를 창출하려는 의도로 『아시아ASIA』라는 잡지 출간을 지원하고 있다니 고맙기 짝이 없다. 이러한 의지와 노력이 하나의 큰 물줄기가 되어 도도하게 흘러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 주길 기대해 본다.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로운 아시아를 우리 손으로 이끌어 가는 더욱 풍성한 미래의 삶을 설계해 보자. 우리 이웃, 아시아인들과 함께 인류 공동체의 삶을 설계해야 한다.

6. 남북 언어 통일을 향한 노력

앞서 제기된 문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표준어는 어떤 개념으로 제정될 수 있을까? 표준어에 대한 지역적인 규정으로 '서울'을 내세운 것은 '반지역적'이고 '수도 중심적인' 권위적 사고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계층적으로 '교양인'이란 도대체 누구를 두고 한 말인가? 따라서 '표준어'의 기준에서 한 차원 나아가 '한민족 간에 두루 소통되는 공통성이 가장 많은 현대어'라는 '공통어'의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공통어'란 무엇인가부터 생각하기로 하자. '공통어'란 '한 나라의 어디서나 공통으로 두루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언어'로 정의할 수 있다. 곧 한민족 언어(겨레말)의 규범이 되고 또 잘 다듬어진 말인 표준어의 기반이 되는 공통어는 바로 '민족 언어 내에서 방언 간의 공통성'을 토대로 해야 할 것이다. 지역 사회 성원 간의 공통성이 많은 방언, 보통사람들이 소통하는데 불편이 없는 말은 공통어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표준어 규정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방언을 배타적인 관점에서 다루어 왔지만, 공통어는 서울말과 지역 방언이 상호 공존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겨레말은 여러 방언을 토대로 하므로 그 방언의 공통성을 모아 표준어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곧 '한민족의 방언 가운데 보통사람들이 두루 사용하는 공통성이 가장 많은 현대어'를 표준어의 기준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공통

어와 방언이 서로 대응되는 개념이라면 ‘공통 표준어’는 ‘공통어를 기반으로 다듬은 인공적인 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 곧 민족어는 이러한 공통 표준어를 기반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추진된다면 현행 표준어 선정의 지역적 기준도 ‘서울(수도)’지역에서 ‘충청(행정수도)’ 지역으로 옮겨야 할 것인가? 표준어의 기반을 이루는 수도 지역의 말, 즉 ‘서울말’이라는 제약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권위적 지배의 시대를 벗어나면서 수도 중심의 ‘표준어’ 정책에서 탈피하여 민중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언을 가려 모아서 사용하는 공통어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영미권에서도 소통발화RP: Received Pronounce를 어문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민족의 의사소통은 공통어를 기반으로 할 때 비로소 우리 민족의 언어 자산은 풍족해질 수 있으며, 이념과 체제의 한계도 언어로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의 사회 전통과 정신적 향취가 남아있는 방언을 공통어로 되살려 우리 언어 자산을 풍족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각종 어문 규범과 국어사전은 우리 국어가 시공간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들이다. 단일한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운명 때문에 서로 다른 어문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남북 언어의 이질화 문제를 낳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 거주하는 동포와 중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느냐 조선어를 배우느냐에 따라 두음 법칙의 차이, 띄어쓰기의 차이, 사잇소리 규칙의 차이 등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편함이 문제가 아니라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남북 어문 규정 하나도 속 시원하게 통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최근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에서 남북 어문 규범 통일을 위해 학

술회의를 통한 노력을 하고 있다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7. 남북의 언어 차이

얼마 전 김현식 씨가 쓴 『나는 21세기 이념의 유목민』이라는 책을 읽다가 남북의 언어차이를 보이는 어휘들을 뽑아보았다. ‘조선전쟁(한국전쟁)’, ‘감정제대(의가사제대)’, ‘젓대(피리)’, ‘당과자(사탕과자류)’, ‘젓사탕(카라멜)’, ‘응근(완전한)’, ‘밥괵(도시락)’, ‘전주대(전봇대)’, ‘정보일꾼(정보요원)’, ‘상점(가게, 슈퍼)’, ‘국수(냉면)’, ‘긴 양말(스타킹)’, ‘닭공장(양계장)’, ‘밥공장(떡방앗간)’, ‘가정부인(전업주부)’, ‘결속하다(끝내다)’, ‘일없다(상관없다)’, ‘수표하다(사인하다)’, ‘무리등(상들리에)’, ‘직승기(헬리콥터)’, ‘위생대(생리대)’, ‘단고기국(개장국)’, ‘과일단물(음료수)’과 같은 어휘 차이뿐만이 아니다. ‘청첩장’, ‘축의금’, ‘방명록’, ‘고회’, ‘하객’, ‘피로연’, ‘스티커’ 등 남북 문화와 이념의 차이 때문에 엄청난 언어 차이가 있다. 특히 남한에서는 넘쳐나는 한자어와 미구잡어로 유입되는 외국어 때문에 고유한 국어의 모습은 차츰 사라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가끔 한자를 빌려 토를 달던 이두나 향찰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國家發展 戰略을 樹立하기 爲해 戰略 테스크 포스트를 構成할 것.” 정부 공직자가 작성한 공문서의 일부이다. 우리말은 ‘을’, ‘하기’, ‘해’, ‘을’, ‘것’과 같은 토씨 이외에는 전부 한자어이거나 외국어이다. 남과 북에서 한쪽에서는 민족주체 사상에 입각하여 고유어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국적 불명의 외국어가 홍수를 이루어도 관망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씨는 “갈라진 양쪽의 언어가 하나로 되어 양측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어야 진정한 민족통일이 이루어진다. 남한말을 못 알아먹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나는 심한 모멸감과 소외감을 느꼈다. 이런 기분은

사람의 감정을 나쁘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무슨 통일이 되겠는가. 동독과 서독의 통일에서 보듯이 철조망이 무너지는 물리적인 통일보다는 서로 다른 체제로 나뉘어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정서적인 통일이 훨씬 어렵기 마련이다. (중략) 나는 남북한 간에 말이 다르다는 것, 한 민족인데도 서로 말을 못알아 먹는다는 게 가슴 아팠다. 민족이란 말이 갈라지면 영영 갈라지고 만다.”라고 말한다. 탈북 지식인의 남북 언어 혼란에 대한 이야기를 꼼꼼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젊은이들의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그런데 북쪽에서 출판된 문법책을 배운 이와 남쪽에서 출판된 문법책을 배운 이들이 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물론 그들의 문법 교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사전을 찾아보는데 자모 순서가 남과 북이 다르다. 따라서 사전을 찾는 일부터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자모 순서는 훈민정음에서부터 우리 전통의 갈래를 찾으면 얼마든지 남과 북이 통일을 합의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학자들은 목을 걸고 서로 엇길로 가고 있다. 학파 운운하면서 여기에서 이단으로 가면 마치 반조국, 반민족적 역적으로 삼을 듯한 태세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주는 것이 두음법칙이다. 남북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만 이해하면 쉽게 적응할 수 있지만,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에게는 매우 난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몇 해 전 북의 ‘龍泉’ 지역에서 폭발사고가 났을 때, ‘용천’ 또는 ‘룡천’으로 읽어야 하는지 또 그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다. 외국인에게는 ‘임수경’과 ‘림수경’이 마치 다른 사람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더 나아가 로마자로 표기하면 남쪽 표기와 북쪽 표기 방식이 달라져 결국 한 사람이 다른 네 사람으로 둔갑하게 된다. 남쪽에서 ‘柳’씨

문중에서 성씨 표기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청원을 낸 결과 인권
차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아버지는 ‘류’로 표기하는 것이 허
락되었으나 아들은 ‘류’ 표기가 허락되지 않아 아버지는 ‘류’씨고 아들은
‘유’씨가 되어 마치 서로 남남이 되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2007년 8월 1일
부터 호적에 올라간 ‘유’, ‘이’씨氏를 ‘류’, ‘리’씨氏로 바꿀 수 있게 대법원의
개정 호적예규가 시행되었다. 성씨의 결정은 개인의 인격권 중 하나라는
판단에서이다. 개인의 인격권과 관계 있는 고유명사에 대한 두음법칙의 예
외를 인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결정이었다. 남북한 학자들 간에 벌어지는
‘두음법칙’의 논쟁은 학술적인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통일을 위한 실용적
인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남북한의 띄어쓰기의 차이이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 대응
방안만 제시하고자 한다. 파생어나 합성어의 경우, 그 경계를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하는지 붙여 써야 하는지 혼란에 빠
진다. 대체로 북쪽에서는 의미 단위로 붙여 쓰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남북
간에 띄어쓰기 목록을 작성하고 띄어쓰기를 잘못된 오류 말뭉치를 구축하
여 자동적으로 오류를 수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고속버스’는 붙여 쓰지만 ‘회사 버스’는 띄어 써야 한다.
‘회사버스’를 붙여 쓴 경우 자동으로 ‘회사 버스’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남북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이 문제는 큰 논쟁 없이 해결할 수 있다.

남북의 외래어 표기는 물론이고 사용 범위에 대한 차이는 실로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북 언어 차이를 유발하는 주범이 ‘외국어 및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흐루시초프’는 러시아 발음으로는 ‘흐루쇼프’로 ‘스탈린’은 ‘스탈린’으
로 ‘톨스토이’도 ‘폴스포이’로 원음주의로 발음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된소리 표기를 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나, 원음의 발음과는 거리가

먼 표기 때문에 ‘임수경’과 ‘림수경’, ‘스탈린’과 ‘스딸린’이라는 다른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결과가 되며, ‘파리’와 ‘빠리’는 서로 다른 두 지명처럼 보이게 된다. 지금 50대인 사람들은 ‘시저Gaius Julius Caesar’라고 말하고 썼지만 이제는 원음주의 원칙에 의해 ‘카이사르’라고 말하고 써야 한다. 어문 규정이 세월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지난 20세기에는 자본이 중심 지역으로 집중됨에 따라 중심에서 소외된 공간의 변방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정보나 물류 이동의 속도가 가속화됨으로써 변방의 자본, 정보, 인재 그리고 문화에 이르기까지 중심부로부터의 수탈이 강화되었다. 수도와 지방, 지역 거점 도시와 시골이라는 공간적 대칭성과 계층의 불균형은 자본과 인재의 집중화를 초래하였으며, 생산 구조뿐만 아니라 삶의 존재 방식에까지 차등성이 심화되었다. 정치 권력과 경제력, 그리고 문화 자원이 모두 수도 서울 또는 지방 거점 도시에 집중된 결과 자본을 장악하기 위한 배타적 지역 패권주의가 나타났으며, 지역간 불균형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 결과 지역 갈등은 점차 증폭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잉’의 비효율과 ‘지방-결핍’의 비능률이 겹쳐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한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도 중앙, 중심을 향한 획일화 현상이 자리 잡음으로써 다양성과 개별성을 생명으로 하는 지역 문화는 함몰되고 있다. 그러한 가장 현저한 현상의 가운데 하나가 지역 방언이 급격히 사라져가는 현상이다.

중심 지역이 주변 지역을 착취하는 빨대 효과 현상은 지방과 지방,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세기 세계사적으로도 패권적 자본 중심 국가가 인류문화를 지배한 양식은 다른 국가의 자본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의미 체계와 문화 코드마저 파괴하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지금에 와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세계적 변방 또는 국가 내부에서의 변방

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결코 새롭거나 낯선 일이 아니다. 역사학에서도 미시사에 대한 관심으로 역사적 대상의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철학계에서도 인간 삶의 변방화와 일상성에 대한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는 추세이다. 이성적 과학주의와 합리적 사고가 키워 온 자본 중심 또는 다수 지향주의로 달려온 인간 삶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은 소외되었던 소수자 혹은 변방 사람들의 삶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는 일이며 그들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 남은 민족 분단 국가로서 정치·경제 통합과 사회·문화 통합을 통한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할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통일 조국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은 중앙 집중적 권한의 과감한 지방 분산, 즉 지방 분권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지역 언어를 존중하는 적절한 언어 정책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겠다. 서울-평양을 중심으로 한 언어 정책이 아니라 서울과 평양을 포함하고 나아가서는 평안, 함경, 경기, 충청, 전라, 강원, 경상, 제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공통어 언어 정책’이야말로 지역 간의 갈등과 분열을 초월하여 문화적 통일성을 확보하는 절대적인 교두보가 될 수 있으며,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일깨우는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수도 중심의 언어, 곧 표준어가 지난 시대의 권위적 중앙 중심의 상징으로 버티고 있는 한 지방 문화의 다원적 발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더 나아가 통일 조국의 언어 통합도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문화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방언의 공식적인 사용을 정당화한 사례는 여러 방면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중 매체가 주도적이라 할 수 있는데,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소설,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언을 사용하려는 욕구가 분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방송 언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곧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에서 방언을 사용하

는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방언이 이렇게 부상하는 현상은 단순한 흥미 유발이나 호기심의 발로에서가 아니라 표준어 중심의 지배적인 언어관에서 일탈하려는 민중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이다.

1933년 이후 수십 년 동안 표준어 규범에 의한 학교 교육의 결과 서울 지역 방언이 남한 전역의 공통어 또는 보통어로 이미 굳게 자리를 잡고 있다. 때문에 아직 서울말이 아닌 지역 방언은 없애 버려야 할 대상으로 폄하되고 있다. 정부의 어문 정책의 기본 틀을 서울 지역의 언어로 한정시킴으로써 지역어 곧 방언은 급속도로 절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문화 비전 21’에서는 방언을 국가 문화 자산으로 인정하고 지역 다원주의의 관점에서 지역 민중들의 공동체 삶 속에 살아 있는 방언을 국가 사업으로 전면 조사하는 일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에서도 방언을 우리말 문화유산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언어문화의 형성을 위해 ‘규범적 무질서’에서 ‘질서 있는 다원주의’로 언어 정책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더 이상 ‘방언’이 표준어에 비해 거칠고 나쁜 말씨가 아니라 ‘위풍당당한 지역어’로 그리고 선조들이 남긴 언어문화 유산으로 그 가치를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방언’을 흔히 ‘사투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시골말’, ‘촌놈말’, ‘무전말’, ‘어쩐말’이라고 하여 ‘표준어’에 대응되는 권위가 없는 촌스러운 말씨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방언’과 관련되는 용어는 대체로 표준어를 전제로 하여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 학술적 용어로 ‘방언方言’, ‘지역어地域語’로 부르기도 하고, 지역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방언 자체의 고유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땃말’이라고 하기도 하며, 그 구어성, 일상성을 강조하여 ‘일상어’라고 하기도 한다. 현재의 방언을 통해 우리는 과거와 만날 수 있으며, 또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다. 또한 방언은 우리 선조들의 일상 삶의 현장을 재구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준다. 잊혀 가는 방언은 무형 문화재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시간에 의한 공간의 절멸’ 또는 ‘시간에 의한 공간의 대체’에 의해 공간이 동시화하는 상황, 곧 ‘시간에 의한 공간의 섬멸’이라는 상황에서 공간적 의미와 경제적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의 사회 전통과 정신적 향취가 남아있는 방언을 배척해야 할 부정적인 대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공통 표준어로 되살려 우리 언어 자산을 풍족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상적인 표준어는 서울말 중심이 아니라 ‘공통어’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의 일상어와 방언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심부의 언어와 변두리 언어가 서로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교호적인 관계로 발전될 때 한 민족, 한 언어가 더욱 풍요롭게 영위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을 포괄하는 언어 정책의 역량이 갖추어질 때 진정한 민족 언어 통일의 소망이 실현될 것이다.

지방에서 자란 사람들은 초중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학교에서 사용하는 말과 집에서 사용하는 말이 달랐다. 경북 안동 출신의 수필가 김서령(2006)은 방언에 대한 그리움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경북 안동 지역 사람들은 집에서는 ‘큰으매(할머니의 호칭)’라고 부르고 학교에선 교과서의 표준말대로 ‘할머니’라고 글을 썼다. 어린 시절부터 가슴속에 는 이중의 자아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중층의 겹이고 두께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가 하나를 억누르니 문제다. 학교 교육을 통해 표준말에 익숙해지면서 방언들을 차츰 기억 속에서 지워버릴 수밖에 없다. 단 한 음절에 수백 마디 의미를 함축하던 다채로운 감탄사들과 정이 뚝뚝 듣는 향기로운 종결 어미들과 섬세하고 정교해 후두둑 날개처럼 올라갈 듯한 생생한 형용사들을 이젠 다 잊어 버렸다. 표준말이 아니란 죄로 팽개쳤던 보물들, 금쪽같은 그 말들은 지금 어디로 사라졌나.

세상이 어디나 똑같아졌다. 남원도 통영도 부산도 광주도 서울 거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똑같은 햄버거집, 통닭집,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 똑같은 커피가게와 외상이 허용되지 않는 상가들만 즐비하니 도무지 공간을 이동한 실감이 나질 않는다. 전에는 지방마다 위풍당당하게 귀를 올리던 방언이 있었건만 그걸 듣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텔레비전의 보급과 교통발달의 영향인지, 표준말 교육의 개가인지. 아무튼 펍도 재미없는 일이다. 마치 새마을 운동으로 초가집이 슬레이트집으로 확 바뀌어버린, 잊어버린 우리 시골의 풍경이 그리워지듯, 표준어화의 획일화가 가져다 주는 편리함보다 잊어버린 시골말이 너무도 많아 시골말이 더욱 그리워진다.”

교양은 뭐고 서울 사람이란 또 누구란 말인가. 물론 말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언어 규범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특정 지역 말을 규범어로 정해놓고 다른 지역 말은 방언으로, 이급 언어로 소외시켜버리는 배타성이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도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통성이 가장 많은 현대어’로 표준적 언어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평양말을 문화어로 규정한 북한의 말씨도 함께 아우를 수 있어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언어적 갈등을 미리 막을 근거도 생긴다.

우리가 함께

1. 제주어는 세

제주도는 섬 지

간 역사와 오랜

둘러싸여 천혜의

역사적 전통 속

제주어는 일찍

다. 오랜 시간 동

접촉이라는 교

이질적인 언어

말들의 문화적

있다.

제주의 상고

본고는 2019

주어 보전과

문화에서 기

: 우리가 함께 지켜내어야 할 절멸 위기의 제주어¹ :

1. 제주어는 세계 유산

제주도는 섬 자체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긴 역사와 오랜 전통을 지닌 천혜의 아름다운 섬이다. 온통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제주만이 가진 풍부한 오랜 역사적 전통 속에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전승되고 있다.

제주어는 일찍 한반도의 언어와는 상당히 차이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랜 시간 동안 고립된 시간을 뛰어넘어 육지와의 이동과 이주 그리고 접촉이라는 교섭에 의해 점차 동화하여 제주방언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질적인 언어에서 동질적인 언어로 통합되어 형성된 제주방언에는 제주사람들의 문화적 상상력과 토속적 정보가 아로새겨져 있는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의 상고시대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었지만

¹ 본고는 2019년 11월 11~12일 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한 「절멸위기의 제주어 보전과 부흥 방안, 세계언어학자들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조 강연을 한 필자의 원고이다.

아직 미명의 어둠과 신비 속에 가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건국신화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건국신화의 시조의 탄생과 달리 남방 계열에서 보이는 고 · 부 · 량의 3성신이 땅에서 출현하여 바다를 건너온 3신녀와 혼인을 맺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 제주의 건국 신화는 16세기 무속 제사로 연결될 만큼 지속적으로 추승되어 온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명칭은 고대부터 ‘州胡’, ‘耽羅’, ‘毛羅(托羅)’, ‘儋羅’, ‘涉羅’, ‘耽牟羅/耽毛羅’ 등의 다양한 표기로 남아 있는 제주는 상고시대에 독립 국가로 존재하다가 5~6세기에 백제와 신라와의 접촉에 이어 복속되는 과정을 거쳤다. 제주의 대외 교류는 대체적으로 서부 마한 세력에서 전남 동부권으로 그리고 소가야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한반도와의 문화적 통합화 과정을 보여준 것으로 확인된다.² 특히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남아있는 ‘주호州胡’의 기록을 참고하면

“또 주호州胡가 마한의 서쪽 바다 가운데 큰 섬에 있다. 그 사람들은 대체로 키가 작고 언어는 한韓과 같지 않다.”³

라고 한다. ‘주호’는 ‘오랑캐 마을, 섬’이라는 중국 시각에서 부여한 명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이병도(1976:297-299)나 진용하(2002:93-95) 교수는 당시 제주를 ‘단주亶州/澶州’로 기록한 『삼국지』나 『후한서』 기록에 근거하여 중국 사람들이 원주민 집단과 혼동하여 외래자나 침략 거주 집단

² 김경주, 「탐라시대 전기의 취락구조와 대외교류」,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경인문화사, 41~95, 2019. 참조

³ 제주방언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고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고 문헌기록에 근거하여 현재적 관점에서 유네스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주방언을 언어로 분류했다고 해서 곧 제주방언은 한국어와 독립된 언어라는 것이 학계의 주류 의견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중국의 민방언이나 우 방언도 ISO 639에 의하면 별개의 언어로 인정되지만, 중국어의 하위 방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